

# 나프타 판매 강제조정권 발동 요구

석유화학협회, 정부에 수급대책 건의 움직임 ... 500만톤 수출동결

연일 치솟는 나프타 수급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기업들의 수출 중단까지 거론되고 있다.

석유화학공업협회는 미국-이라크 전쟁이 발생할 시 나프타 수급 대응책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건의안에는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을 시 정유회사들이 500만톤의 수출물량을 국내기업별로 할당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정부가 강제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.

아울러 석유화학공업협회는 ▷나프타 재고 확보 ▷인디아·중국·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나프타 수입 확대 및 중동산 수입비중 감축 ▷Condensate 등 대체원료 사용 확대 ▷공장가동률 감축 등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침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국내기업들은 나프타 수입량 중 70%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.

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현재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되는 화학제품인 벤젠, SM, PVC, EG(Ethylene Glycol) 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

PVC와 EG 등은 자동차와 휴대폰, 컴퓨터, 냉장고, 건설자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중요한 제품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 02/ 26>